

幕末越前藩의 幕政改革運動에 대한
一考察

朴 薰

머리말

1. '東北行違事件'과 舉藩體制의 수립
 - (1) 安政大獄後의 越前藩情
 - (2) '東北行違事件'과 松平慶永의 복귀
2. 越前藩의 幕政改革運動
 - (1) 松平慶永의 政事總裁職 취임과 幕政改革
 - (2) 越前藩 '破約必戰論'의 眞意

맺음말

幕末越前藩의 幕政改革運動에 대한 一考察

朴 薰*

머리말

지금까지 幕末維新 정치사는 주로 長州藩·薩摩藩의 尊王倒幕 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즉 勝者의 시각에서 幕末期를 편향적으로 보아 왔던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각에서는 幕末政治史의 全體像을 파악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패자인 막부에 대한 연구도 한편에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꽤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지녔던 세력, 즉 倒幕派와 幕府의 정면충돌을 회피하려고 하면서, 朝廷·幕府의 화합(公武合體)과 雄藩聯合에 의해 통일국가의 수립을 지향했던 세력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세력을 '公武合體派'라고 하는데 이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越前藩이고 그 번주인 松平慶永이었다.

松平慶永은 1843년 제16대 越前藩主로 취임한 이래 藩政개혁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중앙정계에 깊이 간여하기 시작했다. 그를 중심으로 한 월전번은 水戶·薩摩·宇和島동 유력한 번들과 교류하면서 安政期の '將軍繼嗣運動'에서는 一橋慶喜를 지지하여 막부와 대립하게 된다. 그 결과는 주지하는 대로 安政의 大獄이었다. 막부의 처벌로 송평경영은 번주자리에서 물러나 칩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구2년(1862) 송평경영은 막부의 정사총재직에 임명되어 화려하게 정

* 서울대학교 강사

계복귀를 하여, 숙원이었던 막정개혁을 주도하게 된다.

지금까지 越前藩에 대한 정치사적 연구는 인물연구들이 중심이 되어 왔으며¹⁾ 越前藩의 藩政개혁에 대한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도 주로 安政期 將軍繼嗣運動, 松平慶永이 政事總裁職으로서 벌인 1862년의 幕政改革運動, 그리고 王政復古 이후 薩長과 德川慶喜사이에서 중재활동을 벌였던 시기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본고에서는 첫째, 송평경영이 실각한 후 월전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며, 慶永은 어떤 경로를 거쳐 정계에 복귀할 수 있었던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이 시기 월전번내에서는 ‘東北行違事件’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건은 慶永의 정계복귀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막말에서 흔히 발생하는 번내 권력투쟁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소재이다.

둘째, 경영이 막부의 政事總裁職에 취임한 이후로 막정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은 대외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차였다. 이때 越前藩은 지론이었던 개국론 대신 ‘破約必戰論’, 즉 조약을 파기하고 외국과 싸울 것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과연 당시 양이론자들의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본고는 이상의 두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山崎正董, 『横井小楠』上(傳記篇: 이하, 山崎正董으로 약칭한다.) 下(遺稿篇), 明治書院, 1938.; 松浦玲, 『横井小楠』, 朝日新聞社, 1976.; 圭室謙成, 『横井小楠』, 吉川弘文館, 1967.; 山口宗之, 『橋本左内』, 吉川弘文館, 1962.; 川端太平, 『松平春嶽』, 吉川弘文館, 1967.; 山口宗之, 『松平慶永』, 人物往來社, 1967.; 由利正通, 『子爵由利公正傳』, 岩波書店, 1940.; 三岡丈夫, 『由利公正傳』, 光融館, 1916.; 中根雪江先生百年祭事業會, 『中根雪江先生』, 1975.

2) 三上一夫의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幕末の越前藩』, 福井縣郷土新書1, 福井縣郷土誌懇談會, 1974 『公武合體論の研究-越前藩幕末維新史分析』, 御茶の水書房, 1979(이하 『公武合體論の研究』로 略稱함); 『日本近代化の研究-福井縣下の動向を中心に』, 文獻出版, 1987 또한 高木不二의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嘉永安政期の幕藩關係と越前藩』 『幕藩權力と明治維新』, 吉川弘文館, 1992; 『幕末期越前藩藩政改革路線に關する一考察-横井小楠 ‘國是三論’を中心に』 『三田學會雜誌』 75-3, 1982; 『越前藩安政改革について』 『史學』 51-3, 1981, 『越前藩天保弘化改革試論』 『史學』 57-4, 1988

1. ‘東北行違事件’과 舉藩體制的 수립

(1) 安政大獄後의 越前藩情

주지하는대로 安政5년 將軍繼嗣運動에서 실패한 송평경영등은 막부로부터 처벌을 받아 藩主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江戸에서 松平慶永이 실각하고 幕府의 명령으로 松平茂昭³⁾가 越前藩의 藩主가 된 후 越前藩의 政情에는 변화가 생겼다. 慶永의 처벌에 대해 번내에서는 慶永의 처벌을 통탄하는 세력, 慶永의 측근들에 대해 반감을 표하는 세력, 茂昭襲封을 계기로 藩政의 변혁을 기도하는 세력등이 다투며 혼란상을 보이기 시작했다.⁴⁾

幕府의 隱居·謹慎처분으로 慶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를 보좌해 將軍繼嗣運動을 주도했던 세력은 慶永실각에 대한 책임문제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將軍繼嗣運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세력은 “慶永의 雪冤을 위해서는 幕府의 의혹을 풀어야하고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將軍繼嗣運動의] 剽劫은 필자주. 이하 같음] 참모들을 제거해야한다”⁵⁾고 주장하여 1859년 10월 5일에는 安政改革派의 중심이었던 家老 本多修理가, 11월 5일에는 側用人이며 慶永의 핵심측근인 中根雪江이 각각 免職되었다. 또한 10월 7일에는 橋本左內가 幕府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어서 新藩主 松平茂昭하에⁶⁾ 家老 松平主馬와 家老 本多飛騨이 藩政을 주도하게 되었다.⁷⁾ 越前藩은 이후로 安政개혁에서의 節儉爲主의 정책을 탈피하고 본격적인 부국책을 취한다. 松平主馬와 本多飛騨 밑에서 이를 담당했던 것은 奉行 長谷部甚平과 製産方頭取 由利公正 등 경제관료층이었다.⁸⁾ 이들은 橋本左內의 부국론의 영향을 기반으로 하고 또

3) 慶永이 隱居명령을 받은 安政5년7월 越前家の 支流인 糸魚川藩主 松平直廉이 幕命으로 慶永의 양자가 되어 藩主職을 계승했다. 이 사람이 17대藩主 松平茂昭이다.

4) 山口衆之, 앞의 책, 208쪽

5) 『橋本景岳全集』, 1939, 1060쪽, 高木不二, 「藩政改革路線」, 219쪽서 재인용

6) 越前藩 17대藩主 松平茂昭는 1860년 초에 越前藩에 도착한다.

7) 高木不二, 위의 논문, 219쪽

8) 1859년 8월 由利公正은 製産方頭取에, 奉行 長谷部甚平과 奉行兼郡奉行 勝木十藏은 製産方頭取同様心得에 각각 임명되었다. 高木不二, 위의 논문, 220쪽

橫井小楠의 부국론을 접하면서 安政개혁의 節儉思想을 탈피하였고⁹⁾ 1859년에 서 1860년에 걸쳐 製産方을 핵으로 대외교역을 포함하는 유통대책을 통해 번 내상품생산을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¹⁰⁾ 橫井小楠은 1859년 5월 越前藩에 다시 와서¹¹⁾ 慶永의 실각으로 위기에 처한 越前藩政을 수습하는데 진력하는 한편 부국노선을 강력히 지지했다. 그는 그해 12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다시 熊本에 돌아갔다가 1860년 초 새藩主 松平茂昭가 越前藩에 도착할 무렵 세번째로 福井에 초빙되어 왔다. 小楠은 藩主에 進講하거나 學館에서 강의를 하고 번의 大小의 政務에 참가하면서 번의 부국노선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번내에 기반을 강화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미 1858년 그가 처음 福井에 왔을 때 執政이었던 本多修理와 松平主馬등은 小楠의 식견에 찬탄을 했고¹²⁾ 慶永의 처벌소식이 전해져 越前藩에 큰 동요가 일어나자 당시 執政인 松平主馬는 小楠의 숙소에까지 찾아와 “이번의 大變[安政의 大獄]으로 분명히 귀국하겠다는 생각도 있겠으나 이제까지 많은 敎示를 주시어 모두 인심도 합하고 있으므로 꼭 머물러 앞으로의 일을 하여주도록” 부탁했다.¹³⁾

由利公正·長谷部甚平·村田氏壽¹⁴⁾ 등 유력한 藩士들도 小楠노선을 지지했다. 長谷部甚平은 小楠을 처음 대하고 그 식견이 光明正大하며 그 주장은 실로 명쾌하여 자기들의 선구가 된다고 감복하고 있다.¹⁵⁾ 小楠도 長谷部甚平에 대해 天資奇才를 갖고 있으며 經綸超群하여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越前藩 제일의 인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¹⁶⁾ 由利公正도 후년 小

9) 高木不二, 위의 논문, 219쪽

10) 高木不二, 위의 논문, 220쪽

11) 慶永의 초빙으로 1858년 4월 越前藩에 도착한 小楠은 그해 12월 동생의 사망소식을 듣고 고향인 肥後藩熊本으로 돌아갔다.

12) 「橋本左内宛村田氏壽書翰」(安政5年4月12日), 山崎正董, 448쪽서 재인용

13) 「橫井牛右衛門·橫井久右衛門へ」(安政5年7月16日) 『橫井小楠關係史料』一, 東京大出版會, 1977년 覆刻(처음 간행은 1938년), 266쪽

14) 村田氏壽는 慶永의 명령을 받고 安政3년 熊本에 가서 小楠을 초빙해온 인물이다. “그의 인생에 있어 역시 橫井小楠과의 만남과 傾倒는 큰 轉機였다” 高木不二, 「越前藩士村田氏壽論」『關西巡廻記』『西遊日誌』を中心に, 『明治維新の人物と思想』, 吉川弘文館, 1995, 84쪽

15) 「橋本左内宛長谷部甚平書翰」(安政5年4月12日), 山崎正董, 449쪽서 재인용

16) 『越前人物誌』, 「談錄」『北越土産』, 山崎正董, 449쪽서 재인용

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 있음을 기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小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小楠 역시 “저도 오늘저녁은 長谷部甚平·由利公正등 마음편한 사람 四,五名이라도 불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것”¹⁷⁾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을 신임하고 있었다. 由利公正과 長谷部甚平은 慶永실각후 小楠의 지휘하에 부국책을 주도하며 藩政의 핵심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由利公正은 橋本左內가 죽고나서 越前藩에서는 長谷部甚平을 제외하고는 한사람의 상담할 상대도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에게 신뢰를 갖고 있었다.¹⁸⁾ 여기서 小楠을 중심으로 本多飛驒·松平主馬·由利公正·長谷部甚平等 훗날의 舉藩上洛派 인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번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벌어지는 사이 慶永은 江戸의 越前藩邸에 謹慎을 하고 있는 처지로 외부출입은 물론 서신왕래 등이 금지되고 있어 자연히 藩政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해갔고 이에 따라 그의 측신들인 中根雪江과 本多修理도 藩政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小楠은 번의 분열¹⁹⁾을 가장 우려하고 藩士의 심기를 일신하여 舉藩一致할 것을 주장했다.²⁰⁾

(2) ‘東北行違事件’과 松平慶永의 복귀

이같은 상황하에서 1860년 3월 井伊直弼의 암살사건(櫻田門外の 變)이 발생했다. 井伊直弼의 뒤를 이어 幕政을 지휘하게 된 老中 久世廣周와 安藤信正은 朝廷과 一橋派大名에 대한 강경책을 버리고 朝廷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이른바 ‘公武合體’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해 9월 慶永의 謹慎처분을 사면하게 된다. 慶永이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자 中根雪江등 慶永의 측근들은 慶永에 藩政의 주도권을 돌려주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것이 本多飛驒·松平主馬 등 당시의 藩수뇌부와 마찰을 일으켜 1860년 10월의 ‘東北行違事件’이 발생한

17) 「宿許〜[고향집에라는 뜻]」(万延元年11月28日)『横井小楠關係史料』一, 339쪽

18) 三岡丈夫, 『由利公正傳』, 光融館, 1916, 58쪽

19) 당시 越前藩은 번의 중신측과 江戸의 慶永간에만 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859년 이래 추진되어온 부국책을 반대하는 수구파와의 분열도 심각한 상태였다. 山崎正菫, 515쪽

20) 山崎正菫, 516쪽

다.²¹⁾ 이것은 당시 越前藩의 藩主인 松平茂昭와 本多飛騨·松平主馬 등 家老들이 의결한 인사조치를 江戸의 松平慶永이 10월 12일 서한을 통해 반대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데서 비롯된다. 이 사건은 사료의 부족으로 그간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²²⁾ 경영의 실각중에 번내에서 세력을 키워왔던 本多飛騨·松平主馬 등의 세력과 慶永-中根雪江세력 간의, 번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는데 나중에 擧藩上洛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도 이와 거의 유사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서한을 받은 家老들은 人事에 대해 中根雪江이 은밀히 江戸의 慶永에게 諫했기 때문이라고 中根雪江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藩정부의 권위도 잃게 되고 國[藩]의 체면도 서지 않는다”²³⁾고 분개했다. 10월 15일 家老인 山縣三郎兵衛·松平主馬·本多飛騨·酒井十之丞·千本藤左衛門들은 小楠숙소를 찾아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이로써 慶永이 幕府의 명령에 의해 藩主職에서 물러나고 게다가 謹慎처분으로 정치활동이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藩政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江戸의 松平慶永, 그 측근인 中根雪江측과 慶永실각후 번정을 주도하던 松平主馬·本多飛騨를 중심으로 한 세력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것이 인사문제를 계기로 표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小楠은 이것이번의 분열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을 오히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藩重臣들과 慶永측의 갈등을 해소하고 거번일치 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이번의 일은 국가홍폐의 갈림길이므로 즉시라도 자신의 藩인 肥後藩으로 돌아갈 각오로 사태수습에 힘

21) 高木不二, 「藩政改革路線」, 220쪽 東北行違란 동쪽의 江戸(松平慶永)와 북쪽의 越前藩(松平茂昭, 사실은 本多飛騨 松平主馬 등 번의 중신들)사이의 오해라는 뜻이다.

22) 高木不二가 말한 것처럼 慶永이 처벌을 받은 후 藩政의 주위에 대해서는 사료가 빈곤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高木不二, 「藩政改革路線」, 219쪽) 이 사건의 경과를 알려주는 자료는 「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에 中根雪江이 慶永에 보내는 서한뿐인데 山崎正董도 이것만으로는 越藩君臣間에 그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는 잘 알수 없으나 꽤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山崎正董, 523쪽)

23) 「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松平家所藏), 山崎正董, 521쪽서 재인용. ‘東北行違事件’에 대해서는 이 문서중에 中根雪江이 慶永에게 보낸 서한에 그 경과가 나와있는데 山崎正董은 521-522쪽에 이를 요약해 놓았다. 본고는 이에 의존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中根雪江이 이 사건의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小楠을 자신의 입장과 일치시키고 家老들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은 아니라는 점이다.

을 다했다.²⁴⁾ 小楠은 “설령 국가를 위한 뜻이었다고 하더라도 필경 군주[慶永]의 뜻에 배치되는 逆臣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²⁵⁾라고 논박하여 慶永과의 갈등을 해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천하의 일을 생각하는 小楠에게 있어 이미 有志大名으로 중앙정계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慶永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미 慶永은 謹慎도 풀린 상태였으므로 그의 강력한 지도하에서 번내분열을 극복하고 越前藩의 藩力을 집중해 幕政에 개입할 것을 小楠은 희망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小楠이든 선생이든 어디까지나 합의될 때까지 밀고 나가고 결국 되지 않으면 설령 결별하더라도 붙잡아두지는 않는다”²⁶⁾며 완강히 버티던 번의 중신들은 小楠의 설득으로 마침내 굴복하고 松平主馬와 千本藤左衛門을 江戸의 慶永에 파견하여 그간의 非禮를 사죄하기로 했다. 小楠은 고향 熊本에 보낸 편지에서 執政들이 크게 각성하여 江戸와 越前간의 오해도 이제는 풀렸고²⁷⁾ “조만간 家老一人과 側用人, 目付등 重臣들이 出府 [江戸에 가는 것] 하여 이제까지 오해를 빚은 사정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東北間에 君臣合體의 길로 落着될 것입니다. ……이로써 越前藩은 일동 인심도 합하게 되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 앞으로는 차차 新政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²⁸⁾라고 하였다. 中根雪江도 慶永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번에 진실로 君臣合體臣民一致로 될 좋은 機會가 도래한 것은 國家無量의 慶事로 매우 기쁩니다. 松平主馬를 비롯해서 마침내 舊見을 탈피하여 오로지 臣道를 지킬 생각입니다.”²⁹⁾라고 전하고 있다. 中根雪江은 오히려 慶永이 이들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中根은, 慶永이 ‘松平主馬 등이 지금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前例로 보아 머지 않아 다시 호트러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을 경계하면서 이번의 일은

24) 『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 山崎正董, 522쪽서 재인용

25) 『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 山崎正董, 522쪽서 재인용.

26) 『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 山崎正董, 522쪽서 재인용.

27) 「嘉悦市太郎へ」(万延元年10月18日), 『横井小楠關係史料』一, 334쪽

28) 「荻角兵衛へ」(万延元年10月25日), 『横井小楠關係史料』一, 335쪽

29) 山崎正董, 524쪽서 재인용. 山崎正董은 이 의견서의 출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인용한 慶永에 보내는 中根의 편지(『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에 수록)가 ‘東北行違事件’의 경과를 서술하고 말미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했다고 했는데(523쪽) 이 의견을 가리킨 것일 것이다.

실로 경사스런 일이므로 그들 重臣들이 이미 愛君의 자세를 취한 바에는 그 성의를 인정하여 흔쾌히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신하의 마음은 누그러질 수가 없어 다시 멧힌 바가 생길 것³⁰⁾이라며 이들을 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사죄사절의 파견에 대해서는 “이번 家老들이 말씀올리는 條目에 대해서는 天理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으로 처분하시지 말고 공정한 생각으로 충분히 國是의 상담을 해주신다면 家老들도 마침내 잘못됨을 깨닫고 더욱 忠貞을 다할 것”³¹⁾이라고 충언하고 있다. 이로 볼 때 中根雪江 등 慶永의 측근들보다도 慶永 자신이 本多飛驒·松平主馬 등 번의 충신들에 대하여 더 깊은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小楠은 慶永의 謹慎해제로 越前藩의 중앙정국에의 복귀가 임박한 상황에서 모처럼 맞은 변내화합을 바탕으로 거번일치체제를 수립하여 이에 대처하려고 했던 것이다. 11월 4일 家老 松平主馬와 目付 千本藤左衛門이 出府[江戸에 나가는 것]하여 慶永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12월 25일 歸藩했다. 이리하여 小楠이 越前藩에 초빙되어 온 4년동안 인심이 각各이고 분분하였던 越前藩은 藩主를 비롯 執政 諸有司 모두 일치하였고 비로서 國是라는 것이 세워졌던 것이다.³²⁾ 1861년 1월 22일 慶永을 수반으로 하고 中根雪江을 側用人으로 복직시키고 수구파의 家老 狛山城까지를 포함하는 舉藩體制가 수립되었다.³³⁾

2. 越前藩의 幕政改革運動

(1) 松平慶永의 政事總裁職 취임과 幕政改革

慶永은 1862년 7월 幕府의 政事總裁職에 취임하게 된다. 政事總裁職이란 것

30) 山崎正董, 524쪽.

31) 『慶永公唐桑秘匡文書二』, 山崎正董, 526쪽서 재인용

32) 「荻角兵衛·元田傳之丞へ」(文久元年正月4日), 『横井小楠關係史料』一, 348쪽

33) 高木不二, 『藩政改革路線』, 220쪽

은 이때 처음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老中の 위에 위치하는 것이었다.³⁴⁾ 이때 松平慶永은 横井小楠을 자신의 정치고문으로 삼아 江戸로 불러올려 慶永-小楠에 의한 文久幕政改革은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것은 中根雪江·本多修理 등 慶永의 측근들이었다. 이해 초에 이미 小楠은 越前藩主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朝廷이 討幕의 密勅을 내렸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조막간의 불화가 격해짐을 우려하고 있었다. 막부는 조정에 恭順해야하고 결코 조정을 압박해서는 안되며 그간의 非政을 개혁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幕府가 반성없이 京都를 압박한다면 그것은 천지가 멸망하는 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³⁵⁾ 이는 幕政改革을 통해 公武一和를 이루려는 것으로 慶永이 주장하는 ‘幕私[幕府의 私政]의 제거를 통한 朝廷과의 화해도 같은 입장이다.³⁶⁾ 그렇다면 越前藩이 추진하고자 하는 幕政改革의 기본방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松平慶永이 정사총재직에 임명될 무렵 小楠이 幕府에 전의한 『國是七條』에 잘 나타나 있다.

大將軍이 上洛하여 歷代將軍의 [朝廷에 대한] 無禮를 사과하라.
諸大名의 參勤交代를 중지하고 述職 [政事に 의견을 開陳하는 職책]으로 삼아라.
諸大名의 부인들을 歸國시켜라.
外樣譜代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발하여 政官으로 삼아라.
言路를 크게 열어 전하와 더불어 公共의 政치를 행하라.
해군을 일으켜 병력을 강화하라.
민간상인에 의한 무역을 중지시키고 官貿易을 행하라.³⁷⁾

- 34) 越前藩士들은 薩摩藩이 요구한 大老는 원래 譜代大名의 職책으로 親藩인 越前藩이 奉職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명예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정사총재직을 신설하였다. (山崎正董, 564쪽)
- 35) 「藩主に呈する書」(文久2年3月) 『横井小楠關係史料』一, 86쪽
- 36) 慶永의 ‘幕私’ 비판에 대해서는 村田氏壽, 『續再夢紀事』一, 東京大出版會, 1974 覆刻 (처음 간행은 1921), 6-12쪽
- 37) 「國是七條」 『横井小楠關係史料』一, 97-98쪽. 慶永은 이를 다시 5개의 조항(五事)으로 정리해서 幕閣의 설득에 나서고 있는데 慶永의 五事의 제5항은 제후에게도 무역을 허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慶永이 政事總裁職으로서 맨먼저 착수한 것은 久世·安藤정권이 1862년 2월 설립한 國益會所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그 주요원인은 幕府난독의 전국시장지배에 의한 무역독점이 薩摩藩 등 西南諸藩의 반대를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三上一夫, 『公武合體論の研究』, 163쪽) 또 田中彰은 文久2년의 단계에서 서남옹변의 公武合體의 주요목적이 幕府무역독점에 대한 반대였다고 했다. 田中

이것은 幕府전제를 개혁하여 朝廷과 제번과의 타협을 촉구한 것이었다. 즉 將軍과 譜代大名이 독점하던 정권을 朝廷과 諸藩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幕府의 私政을 공의 정치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 것이었다.³⁸⁾ 이 개혁안은 將軍上洛·參勤交代制 폐지·譜代 이외의 大名의 정권참여 등 이제까지 幕政의 근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으나 幕府의 존재와 幕府의 정권담당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³⁹⁾

小楠은 이상의 개혁안을 幕閣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幕閣은 越前藩 개혁안의 수용을 망설였다. 이에 慶永은 8월 24일 등성을 하지 않고 집무를 거부했다. 이때 그는 越前藩主 松平茂昭에 보낸 서한에서 公武一和의 정신을 무시하고 점점 막권강화의 입장에 경도되고 있는 慶喜에 대해 “老中을 비롯 일동 모두 幕府의 私智를 부려 천하공공의 도리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政事總裁職에 임명되고 나서 모든 일에 나의 건언은 하나도 행해지지 않아 헛되이 세월만 허비하고 있을 뿐이어서 두렵습니다.……도저히 어처구니가 없어 근무를 계속할 수가 없고 특히 德川慶喜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幕府의 私智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老中을 비롯 지금은 의심 없이 [慶喜를] 仰望하고 있습니다”라고⁴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당황한 幕閣은 27일과 29일 大目付 岡部長常·大久保忠寬을 보내 개혁의 실행을 약속하면서 慶永을 설득했다. 越前藩의 강경한 주장에 의해 다음달인 閏8월 幕府는 참근제를 완화하고 諸侯妻子의 歸藩허용, 歷代天皇의 山陵補修, 文久3년(1863년) 2월 將軍상경, 進獻物·의복 등의 간소화를 결정하였다. 參勤制는 諸大名을 계절별로 在府할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3년마다 1회 出府하는 것으로 하고 妻子는 모두 歸藩하고 江戸藩邸의 家臣은 가능한한 감원하며 제후가 在府 중일 때는 家臣도 수시로 등성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彰, 「幕末の政治政勢」 『日本歴史』 近代 1, 140쪽

38) 松浦玲, 「横井小楠」, 190쪽

39) 이에 대해서 山崎益吉은 이미 「國是七條」의 단계에서 小楠은 ‘公共의 道’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德川비판을 하고 있고 결코 德川을 지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山崎益吉, 「横井小楠の社會經濟思想」, 多賀出版, 1981, 309쪽)

40) 「松平慶永書狀」(文久2年8月26日), 福井市史編纂委員會, 「福井市史」 資料篇 五 近世三, 1990, 427쪽

크게 수정했다. 이중에서 특히 參勤制개혁이 갖는 의의는 영국공사 울코크가 “大名과 그 가족이 江戸로부터 출발한 것에 의해 나타난 변화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성격의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지배계급과 大君[將軍]과의 타협과 협정에 의해 일어난 혁명이다. 어쩌면 무력에 호소하기 위한 준비이다”⁴¹⁾라고 통찰한 것처럼 제번에 대한 幕府의 통제력상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로 해서 越前藩의 幕政改革運動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2) 越前藩 ‘破約必戰論’의 眞意

그러나 문제는 대외방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서 발생했다. 朝廷과 尊攘派의 破約攘夷와 幕府의 개국노선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越前藩은 安政年間이래 개국론을 앞장서 주장해왔지만 천황의 뜻을 일단 존중하고 朝幕間의 분열을 회피하기 위해 ‘破約必戰論’을 내세웠다. 9월 16일 越前藩의 중신들은 다음과 같은 破約必戰의 입장을 慶永에게 건의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였다.

개국은 公 [松平慶永]께서 본래 다년간 [주장한] 지론이지만 安政조약은 일시적인 姑息으로 체결한 것이고 국가영원의 計를 세우기 위해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勅許를 얻지 않고 조인한 것은 부정한 것이므로 결연히 이 조약을 파기하고 천하가 힘을 합쳐 열강과 싸울 각오를 해야한다. 이 일이 행해진 다음에는 천하의 대소제후를 모아 國是를 의논케하여 전국일치의 결의를 하고 나서 우리쪽에서 먼저 해외각국에 국교를 구해야한다. 과연 이와같이 된다면 비로서 진정한 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⁴²⁾

이를 보면 越前藩의 破約必戰論은 尊攘派의 쇄국양이론과는 완전히 레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를 ‘진정한 개국’이라고 했다. 越前藩은 이런 입장을 9월 19일과 20일에 幕閣에 밝혔으나 각로와 幕府관리들은 이에 반

41) Alcock, *The Capital of Tycoon*(日譯『大君の都』), 林竹二, 「幕政改革と‘共和’政治運動-横井小楠の‘共和’政治思想とその展開」, 『共同研究明治維新』, 徳間書店, 1968, 160 쪽에서 재인용

42) 『續再夢紀事』, 一, 86쪽

대의 입장을 밝혔다. 사실 개국론을 고수해왔던 越前藩이 조약폐기와 열강과의 전쟁을 각오해야한다는 주장을 편 것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幕府내 개혁파로서 越前藩과 노선을 같이 해왔던 大久保忠寬조차도 小楠을 찾아와 의문을 표했을 정도였다. 이때 小楠의 답변을 보면 越前藩 破約必戰論의 진의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결전의 각오를 해야한다고 한 것은 원래 현재의 조약은 外夷의 恐喝에 떨어져 勅許를 기다리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실은 不正의 조약이므로 이런 조약은 폐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을 폐기함에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자세히 열강에게 말해야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면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므로 미리 결전의 각오 운운한 것이다. 또 제후가 회동하여 國是를 정해야만 한다고 한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현재의 조약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五大洲의 형세를 살펴봄에 도저히 쇠국의 舊態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대소제후가 회동하여 시의에 적합한 國是를 상의하고 전국일치의 의견을 가지고 朝廷의 뜻을 稟議하여 우리측에서부터 사절을 각국에 파견하여 개국의 政略을 행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⁴³⁾

이에 大久保忠寬은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幕閣에 이를 설득하겠다고 했다.⁴⁴⁾ 이상 越前藩의 주장을 살펴보면 越前藩의 破約必戰論은 조약폐기와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고 있는 安政조약을 폐기하여 정국을 안정시킨 후 새조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열강측에 일본의 국내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열강이 수용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미리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破約必戰에 무게가 있다기보다는 그를 통한 국론의 통일과 여론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진정한 개국’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과정에서 幕府도 朝廷도 아닌 諸侯會議가 國是를 결정한다고 하여 새로운 조약체결의 과정을 통해 정책결정의 場을 옮기려는 구상의 일단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이는 幕府를 중앙정부로 인정하고 幕政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國是七條의 구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破約必戰論이라기 보다는 “破約必戰 全國會

43) 『續再夢紀事』 一, 104쪽

44) 『續再夢紀事』 一, 105쪽

議 진정한 개국”론⁴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越前藩論이 당시 京都를 중심으로 창궐하고 있던 양이론에 타협한 측면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山崎正董도 越前藩이 본래의 개국론을 朝廷의 양이론과 일시적으로 타협한 것으로 파악했다. ⁴⁶⁾ 그러나 개국노선을 지지하는 慶永과 小楠도 安政條約을 일본전체를 위한 조약이 아니라 ‘幕私’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 이전부터 비판하고 있었고 尊攘派의 양이론은 바로 이점을 공격했기 때문에 公武一和를 통해 국론분열과 內戰을 회피하려고 했던 월전번이 조약을 일단 파기한다는 입장을 세웠던 것은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⁴⁷⁾ 越前藩은 朝幕間의 분열의 위기를 물고온 양이문제를 이용해 오히려 朝廷을 무시하고 安政조약의 고수를 주장하는 막권강화주의와 무조건적인 쇄국양이를 주장하는 尊攘派를 모두 견제하고 조막간의 一和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越前藩과 長州藩의 관계이다. 越前藩의 破約必戰論에 대해서 幕府관리들이 일제히 반대했다는 것은 앞서도 언급했다. 大目付 岡部長常은 “橫井의 주장은 흡사 長州藩의 說에 雷同하는 것이어서 지난날이래 들은 그의 持論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조약을 폐기하는 설과 같은 것은 도저히 외국인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억지로 승낙시키려고 한다면 금방 大亂으로 될 것”⁴⁸⁾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당시 越前藩은 破約攘夷하라는 朝廷의 칙지를 幕府에 전하기 위해 江戸에 온 長州藩 세자 毛利定廣을 수행한 長州藩의 藩士들과 잦은 접촉을 하고 있었다. 9월 들어서 桂小五郎, 周布政之助등이 越前藩邸를 출입하며 개국설의 대표자로 천하에 널리 알려진 慶永과 小楠에 대한 ‘尊攘志士’들의 암살기도가 있음을 알려주기도 했고 양변의 藩士들간에도 활발한 시국토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⁴⁹⁾ 9월 20일 越前藩의 中根雪江이 長州藩士인 小幡彦七에게 開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쇄국으로 부강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小幡은 일단 칙지를 받들고 난 후에는 물론 우리쪽에서부터 개국을 해야한다고 대답했다.⁵⁰⁾ 周布政之助, 桂小五郎 등도 慶

45) 松浦玲, 『横井小楠』, 203쪽

46) 山崎正董, 612쪽

47) 松浦玲, 『横井小楠』, 204쪽

48) 『續再夢紀事』 一, 99쪽

49) 『續再夢紀事』 一, 75, 80, 83쪽

50) 『續再夢紀事』 一, 93쪽

永과 만나서 “일단 양이를 결정한 다음에는 우리쪽에서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⁵¹⁾라고 하였다. 즉 당시 長州藩의 운동은 僞勅의 비난을 받고 있는 安政조약을 일단 파기하고 나서 다시 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고 개국 그 자체를 근본에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열강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파약을 한다면 일전을 불사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만일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선을 보는데로 공격해 쫓아내라는 天保年間 이전의 打拂論과는 다른 것이었다.⁵²⁾ 이 때문에 9월 21일 小楠을 찾은 周布政之助, 中村九郎, 桂小五郎 등 長州藩士들은 小楠과 대화하고 나서 그동안 개국론자인 그에게 품었던 의심이 풀렸다고 말하고 있다.⁵³⁾ 이는 破約必戰論이 長州藩까지도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越前藩으로서는 물론 개국노선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지만 安政조약의 폐기와 외국인철거를 강력히 요구하는 朝廷과 長州藩을 제외하고는 公武一和를 통한 ‘天下公共之政’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越前藩은 朝廷과 長州藩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그들의 결별을 방지하면서도 결국에는 일본을 개국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타협책으로서 破約必戰을 고안했던 것이다. 이것은 幕府와 朝廷, 개국파와 양이파를 결합해 열강의 위협앞에서 국가의 분열을 막고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책략이기도 했다.

越前藩의 이와같은 일종의 타협책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인 것이 將軍後見職 一橋慶喜였다. 그는 萬國이 개국을 하는 때에 일본만 쇠국을 할 수는 없고 安政조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부와 정부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이므로 이를 폐기하려든다면 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고 이는 명분없는 전쟁임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미 幕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일본전국을 위할 각오’로 천황과 朝廷에 개국론을 설득하기 위해 상경할 것이라고 했다.⁵⁴⁾ 이는 애초에 越前藩이 幕府에 요구하던 것이었다. 막권강화에 동조한다고 慶喜를 비판해온 越前藩으로서는 ‘幕私’를 버린 慶喜의 이 주장을 크게 환영하고 일종의 타협책인 破約必戰論을 보류했다. 이런 각오로 幕府가 상

51) 『續再夢紀事』 一, 96쪽

52) 山崎正董, 616쪽

53) 『續再夢紀事』 一, 93쪽

54) 『續再夢紀事』 一, 107-108쪽

경하여 朝廷과 尊攘派를 설득한다면 성사시킬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며 끝내 朝廷이 쇠국양이를 고집할 경우는 정권을 朝廷에 반환하여 쇠국방침에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던 것이다.⁵⁵⁾ 이렇게 되자 長州藩士들은 小楠이 慶喜의 개국설을 듣고서 갑자기 표변하여 이전의 의견을 번복하고 越前藩의 변론을 갑자기 포기하고 慶永을 慶喜의 의견에 따르게했다며 비난했다.⁵⁶⁾ 사실 破約必戰論을 택한 주된 이유는 朝廷과 尊攘派와의 대립을 완화시키고자 한 것이었는데 慶喜의 이상과 같은 주장이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越前藩은 이러한 각오를 갖고 상경하여 諸侯會議를 통해 朝廷에 개국노선을 諫하고 長州와 尊攘派의 노선전환을 꾀할 수 있다면 破約必戰論의 타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보다 ‘진정한 개국’을 이루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0월에 들어서 朝廷공경이자 尊攘派의 지도자인 三條實美가 土佐藩의 5백여 군사와 함께 江戸로 내려와 직지를 전할 예정이니 慶喜의 상경을 연기하라는 朝廷의 방침이 정해지자 幕府의 이같은 방침은 분열했다. 三條實美가 전할 칙지의 내용은 다름아닌 양이의 실행을 幕府에 재촉하는 것이었다. 칙사는 쇠국양이를 내걸고 東下하고 慶喜는 개국론을 갖고 西上하는 형국이었다.⁵⁷⁾ 즉 朝廷과 幕府의 노선이 결정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越前藩은 幕閣, 慶喜와 크게 사이가 벌어졌던 것이다. 이때 越前藩의 입장은 개국을 上奏하고 만약 朝廷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幕府는 결연히 정권을 반환할 각오를 해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幕府는 이미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던 慶喜는 慶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慶喜는 土佐藩의 山内容堂이 攘夷勅旨를 遵奉하지 않으면 攘夷가 攘將軍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⁵⁹⁾ 상경을 포기하고 마침내 사임을 원하기에 이르렀다. 즉 慶喜자신에게 정권을 걸고 개국을 주장할 결심은 없었던 것이고⁶⁰⁾ 慶喜를 믿고 ‘破約必戰 全國會議 진정한 개국’론을 일시 이탈했던 越前藩은 ‘뼈아픈 실패’⁶¹⁾를 하게 된

55) 실제 慶永은 文久3년 3월 京都에서의 公武合體運動이 실패로 돌아간 후 將軍職의 사임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後述하겠다.

56) 『周布翁傳』, 174-175쪽, 林竹二, 앞의 논문, 198쪽서 재인용.

57) 山崎正董, 627쪽

58) 『續再夢紀事』 一, 122쪽

59) 山崎正董, 634쪽

60) 松浦玲, 『横井小楠』, 209쪽

것이다.

이렇게 되자 小楠은 幕府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좀더 분명히 하기에 이른다. 그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朝廷은 興起하고 幕府는 쇠퇴하니 東西의 勢가 이와같이 성하고 쇠퇴한다면 賴朝公 [源賴朝] 이전의 君臣관계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天命人心의 正理에 위배되고 일본전국은 大亂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⁶²⁾라고 하여 幕府의 정권담당에 회의를 나타내고 서쪽에서는 薩摩藩의 島津久光父子가, 關東에서는 慶永과 土佐藩의 山内容堂이 상경하여 천하의 방책을 의논하여 公武一致의 國是를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⁶³⁾ 薩摩藩士와 접촉을 꾀하고 있다. 이는 小楠이 幕政改革노선을 벗어나 幕府도 제후의 반열로 내려온 상태에서 德川氏까지를 포함하는 雄藩聯合路線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長州土佐·會津藩등과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요한 幕府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⁶⁴⁾ 이는 다음해에 벌어지는 越前藩의 舉藩上洛추진에서 나타나는 정권구상과 유사한 것으로 京都에서의 雄藩聯合을 구성하여 여기에 정권을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결국 幕政改革을 위한 越前藩의 노력은 당당한 개국론에 대한 ‘慶喜의 배신’⁶⁵⁾ 그리고 그에 이어 幕府내의 막권강화파와 慶喜가 결합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이에 小楠을 중심으로 한 越前藩은 幕府를 통한 개혁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雄藩聯合을 결성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⁶⁶⁾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安政5년(1858) 松平慶永이 실각한 이래, 월전번내

61) 松浦玲, 『橫井小楠』, 207쪽

62) 『嘉悅市之進へ』, (文久2年10月23日) 『橫井小楠關係史料』 一, 391쪽

63) 『續再夢紀事』 一, 240쪽

64) 『嘉悅市之進へ』(文久2年10月23日), 『橫井小楠關係史料』 一, 391쪽

65) 林竹二, 앞의 논문, 185쪽

66) 林竹二, 위의 논문, 158쪽

에서는 新藩主를 중심으로 한 反정영파가 실권을 장악하여, 경영파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横井小楠이 월전번에 초빙되어 오면서 정세는 바뀌고 이 기회를 노린 경영은 江戸(東)에 있으면서도 월전번(북)의 인사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집권파와 갈등을 빚었다. 이것이 이른바 ‘東北行違事件’이다. 이 문제는 그간 그다지 다루어져 오지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사료이기는 하나 이에 기반하여 그 경위를 서술하고, 이것이 송평경영이 정계복귀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전제가 되었기에 송평경영은 그후 막부에 의해 政事總裁職에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동북행위사건’은 어린 신번주를 중심으로 한 重臣層이, 중앙정계에서도 이름 높았던 前藩主의 영향력을 藩政으로부터 차단하려다 실패한 케이스로서, 이 시기 다른 번에서 발생한 번내 권력투쟁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양태의 패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를 남겨두고자 한다.

한편 월전번의 막정개혁이 실패한 최대의 원인은 대외문제를 둘러싸고 막부와 대립을 보였던 점이다. 이 당시(文久2년) 월전번은 ‘破約必戰論’을 주장하는데, 이는 단순한 양이론이 아니라, 朝幕間의 분열을 일단 회피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개국을 시도하고자 하는 주장이었음을 본고에서는 지적하였다. 그리고 막부와 一橋慶喜의 대외론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결정되었고 그것이 월전번의 일부세력이 막부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된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음을 살펴보았다.

월전번이 주도한 公武合體派는 사실 당시에는 가장 큰 정치세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결국 倒幕派가 막부를 멸망시키고, 집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과 정치구상은 본격적인 조명을 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朝幕間의 결정적인 분열을 막고, 일본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시킨 데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은 매우 크며, 또한 그들의 정치구상은 도막파의 그것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日文摘要】

幕末における越前藩の幕政改革運動に對する考察

朴 薫

これまで幕末維新政治史においては薩摩・長州を中心とした研究が主流であった。しかし、當時最も大きな政治勢力は越前藩を中心とした公武合體はであったといえよう。本稿ではその越前藩を研究對象とした。特に従来あまり言及されてこなかった松平慶永失脚(1858)後に越前藩内で起きた「東北行違事件」を取り上げ、慶永が藩政に復歸する経緯を述べた。慶永失脚後越前藩では新藩主のもとに重臣らが終結し、慶永とその側近の藩政關與を防ごうとした。これにはしばらくは成功したかのように見えたが、横井小楠が越前藩の招聘されてきてから変わる。江戸にいた慶永はこの隙間を見逃さず藩内の人事問題に介入して巻返しを狙い、藩政府と對立した。これが「東北行違事件」である。ここで勝利を納めた慶永は藩の實權者に復歸し、舉藩體制を立てるに成功した。これを踏まえてかれは幕府の政治總裁職に拔擢されたのである。

次に本稿では文久二年(1862)幕政改革の経緯と當時越前藩の對外論である「破約必戰論」について述べた。開國論を持論として持ち續けてきた越前藩この時期いきなり「破約必戰論」、つまり外國と結んだ條約を破り、戰爭を覺悟するという對外方針に變わった。これには各政治勢力が驚いたわけであったが、これは果たしてあり溢れた攘夷論の一つにすぎなかったのか。實をいうと、この「破約必戰論」はまず朝幕間の分裂を避け、結局のところ開國に至るといふ一種の開國論であった。越前藩はこうしてでも朝幕の和解と統一國家の樹立を目指したが、幕府と一橋慶喜は自分達の政權維持ばかりを考えて對外論を決めた。これに失望した越前藩の一部は幕府への期待をほぼ捨て、雄藩連合政權の構想に走るようになった。

越前藩の‘東北行違事件’は以上で指摘したこと以外にも多くの面で示唆するところが多いと思う。たとえば、幕末藩政史における新藩主と前藩主との権力関係はどうなっていたのかの問題について、他藩のケースと‘東北行違事件’を比較して検討するとおもしろいと思われるが、これは今後の課題としておきたい。

一方、公武合體派の政治活動が朝幕の分裂を避け、日本中が内亂に落ちることを防いだことに果たした役割は無視できないと思う。また彼らの政權構想はたとえそのまま實現こそはできなかったが、倒幕派のそれとは別に詳しく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